

# 우리나라 신석기시대 마제석촉의 연구

이 동 주\*

## 〈목 차〉

- I. 머리말
- II. 지역구분과 형식분류
- III. 지역적 특징
- IV. 마제석촉의 계보와 편년
- V. 맺음말

## 국문요약

마제석촉은 빗살문토기 문화와 함께 우리나라 신석기시대의 중요한 특징을 지닌 유물 중의 하나지만, 지금까지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검토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까지의 조사자료를 종합 정리한 후, 이를 형식분류하여 각 지역별 편년과 상호 관련성을 검토한 것이다. 그 결과 마제석촉은 오산리, 문암리유적을 중심으로 하는 한반도 동해안의 압인문토기 하층문화 단계에서 처음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후 전기 단계인 압인문토기 단계에 남해안지역으로 1차 확산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신석기문화 중기 단계로 이어지면서 동해안지역은 이전 문화와 단절되는 느낌이 강한 반면, 이 특징적 요소들이 궁산유적과 지탑리유적을 중심으로 하는 서북 해안지역에서 돌연 등장하면서 가장 다양하고 발전적인 모습을 띠게 된다. 토기문화의 특징을 감안한다면 남해안지역의 요소들과 일부 결합되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후 빗살문토기로 대표되는 한반도 신석기문화 중기문화가 형성되면서 궁산-지탑리를 중심으로 서북지역에서 발달된 문화가 다시 남쪽으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지역별로

\* 동아대학교 인문대학 고고미술사학과

이 논문은 2007학년도 동아대학교 학술연구비(신임교원과제)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다양한 형태의 마제석촉들이 등장하게 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주제어 : 신석기시대, 마제석촉, 압인문토기, 빗살문토기, 궁산유적, 지탑리유적,  
오산리유적, 문암리유적

---

## I. 머리말

마제석촉은 우리나라 신석기시대의 중요한 특징적 유물 중의 하나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 검토는 지금까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것은 과거 발굴조사 성과의 미비로 인하여 뚜렷한 공반관계가 불명확하였고, 패총 중심의 조사에서는 출토 예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신석기시대 유적에서 간혹 확인되는 마제석촉의 존재를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신석기시대 말기 단계에 등장하여 청동기시대에 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았고, 연구의 중심 역시 청동기시대 마제석촉을 다루는 과정에서 간략하게 다루어져 왔다.<sup>1)</sup>

이러한 이유로 빗살문토기 단계의 가장 이른 시기 유물로 평가되고 있는 궁산유적이나 지탑리유적에서 다양한 종류의 마제석촉류가 공반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연구는 주로 토기만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던 것이라 판단된다. 최근에 이르러 남한지역 자료의 증가에 따라 지역적으로 자료 집성 및 형식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 성과도 나타나고 있어<sup>2)</sup> 매우 고무적 현상이라 할 수 있다.

필자는 이전에 빗살문토기를 중심으로 하는 궁산-지탑리-암사동유적의 성립과정과 시기를 검토하면서, 이 문화가 전기 단계의 동해안의 오산리식 압인문토기가 남해안의 남해안의 압인문토기 문화와 결합되어 서해안지역으로 파급되면서 발생한 것이라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sup>3)</sup> 궁산문화기에 나타나는 토기 문양의 특징적 요소들이 압인문토기 단계에서 모두 확인될 뿐만 아니라, 시베리아를 비롯한 주변지역에서 그 계통을 찾을 수 없고, 마제석기에 있어서도 압인문토기 단계와 그 계통이 증명되기 때문이다.<sup>4)</sup> 또한 서해안지역의 이른 시기로 편년되는

1) 黃龍渾, 1983, 『石器·骨角器』 『韓國史論』12, 韓國의 考古學 I·下, 國史編纂委員會  
2) 황기덕, 1958, 『조선에서 나타난 활촉의 기본 형태와 분포』 『문화유산』6, 과학원출판사  
박진욱, 1967, 『우리나라 활촉의 형태와 그 변천』 『고고민속』67-1  
최성락, 1982, 『한국마제석촉의 고찰』 『한국고고학보』12, 한국고고학연구회  
3) 고동순, 2006, 『동해안지방의 신석기시대 마제석촉에 대한 고찰』 『강원고고학보』7·8합집  
박준범, 2006, 『한강유역 출토 선사시대 간돌화살촉 연구』 『신석기학보』12  
박준범은 마제석촉을 형식분류한 후, 한강유역을 중심으로 신석기시대로부터 철기시대에 이르는 전 시기별 변화관계를 통계학적 분석방법을 중심으로 연구되었다.  
4) 李東注, 1997, 『全面施文 沈線文土器의 展開와 編年』 『古文化』50, 韓國大學博物館協會  
李東注, 1999, 『韓國櫛目文土器의 發生と 展開について』 『第3回 韓日新石器時代交流研究會』九州繩文研究會·韓國新石器研究會, 第3回 鹿兒島大會  
李東注, 2000, 8, <빗살문토기 문화의 성격> 『先史와 古代』13, -신석기문화의 새로운 연구- 韓國古代學會

구분계 시문토기는 남부지역의 수가리1식토기와 공반 예가 없어 편년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동해안지역의 경우 이 두 지역의 특징을 지닌 토기가 동일 주거지 내에서 같이 출토되고 있기 때문에, 서해안지역의 가장 이른 시기로 편년되는 공산1기 문화는 전체 편년상 다른 지역과 크게 차이가 없다. 따라서 기존의 편년 체계와 같이 전기로 구분할 것이 아니라 공통성을 지닌 중기 단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sup>5)</sup> 따라서 본고에서도 중기 전반으로 편년하고자 한다.

또한 공산 1기 단계에 나타나는 마제석기 중 석촉은 동북아시아 전반적으로 보아도 주변 지역의 신석기문화와 비교하기 어려운 매우 특징적인 성격을 보여 주고 있다. 때문에 본고에서는 한반도를 각 지역별로 구분하여 편년내용을 살펴본 후, 그 계통관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 신석기시대 마제석촉의 발생과 확산, 변천과정이 곧 신석기문화의 지역적 정착과 확산과정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되며, 전술한 기존의 가설을 검증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

## II. 지역구분과 형식분류

한반도 신석기시대, 특히 빗살문토기를 중심으로 하는 중기 단계의 문화는 대체로 청천강을 경계로 그 이남지역으로 한정되어 있다. 신석기시대 마제석촉의 분포도 거의 이와 동일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를 고려하면서 그림 1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산맥과 하천을 중심으로 모두 5개의 지역으로 구분하였다.

우선 서북지역은 청천강으로부터 대동강 주변을 중심으로 하는 서한만 일대로 배후에는 멀악산맥과 묘향산맥, 적유령산맥으로 둘러싸여 있다. 이곳은 해발 200m 이하의 구릉과 평야가 발달되어 있으며, 북한에서는 가장 곡창지대에 속하는 곳이다. 우리나라 빗살무늬토기의 가장 이른 단계로 잘 알려진 공산유적과 지탑리유적, 마산리유적이 위치하고 있으며, 늦은 단계의 유적으로 금탄리유적과 남경유적이 위치하고 있다. 한강유역과도 문화상 유사점이 많기 때문에 이전까지 대부분 동일지역으로 묶어 검토되어 왔다.<sup>6)</sup> 그러나 타래문토기와 같이

5) 李東注, 2003, 10, <빗살문토기 段階의 石器 內容과 特徵> 『韓國新石器研究』6, 韓國新石器學會

6) 李東注, 2000, <東海岸地域과 南海岸地域의 빗살문土器文化> 『地境里先史文化에 대한 學術講演會資料』 양양군·양양군의회

李東注, 2001, 4, <中東部 海岸地域 빗살문토기 文化의 性格> 『韓國新石器研究』1, 韓國新石器學會

7) 韓英희, 1983, 「지역적 비교」 『韓國史論』12, 韓國의 考古學 I·下, 國史編纂委員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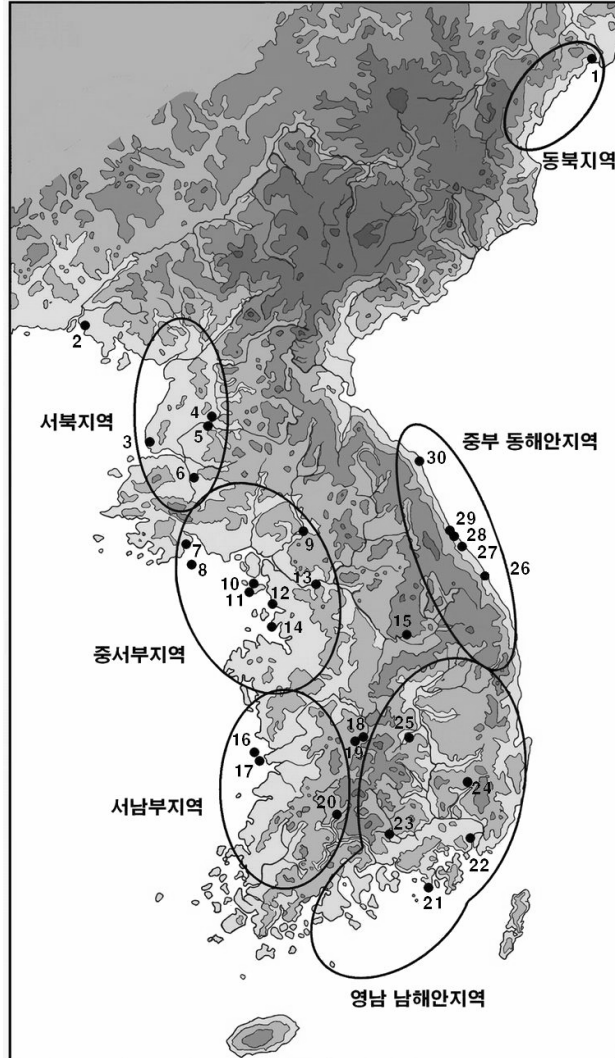


그림 1. 마제석촉 출토 주요유적과 지역구분  
 (1:서포항, 2:신암리, 3:공산, 4:남경, 5:금탄리, 6:지탑리, 마산리, 7:용당포, 8:까치산, 9:삼거리, 10:시도, 11:영중도, 12:오이도, 13:암사동, 미사리, 14:홀곶, 15:상시, 16:가도, 17:노래섬, 18:진그늘, 19:갈머리, 20:원촌, 21:돌산송도, 22:범방, 23:상촌, 24:오진리, 25:송죽리, 26:초장동, 27:지경리, 28:오산리, 29:가평리, 30:문암리)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특징적인 토기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과 그 이후 단계의 변화 과정이 중서부 지역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성격과 계통 분류를 위한 지역구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중서부지역은 지형적으로 경기만과 한강을 중심으로 멸악산맥과 차령산맥, 그리고 동쪽으로는 태백산맥으로 둘러 싸여 있다. 이곳에서는 내륙과 도서지역을

통하여 최근 유적 조사 사례가 많아지면서 자료 역시 급증하고 있는 편이다. 석촉 출토 유적으로는 북한의 용당포패총을 비롯하여 남한지역의 대흑산도패총, 암사동유적, 시도, 영종도, 오이도, 흘곶 등의 유적이 있다.

서남부지역은 영산강유역을 중심으로 그 북쪽에 동진강, 만경강, 금강하류 일대를 포함하는 지역이며, 노령산맥과 소백산맥으로 둘러싸고 있다. 중서부지역과 함께 평야의 발달이 매우 양호한 곳으로 이곳에서는 영남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신석기시대 토기 양식과 서해안식이 공존하는 경우가 많아 상호 편년적 관련성을 검증하는데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제석촉 출토 유적으로는 가도패총과 노래섬패총, 그리고 서부 경남지역과 인접한 곳에는 진그늘유적, 갈머리유적, 원촌유적 등이 있다.

영남 남해안지역은 낙동강을 중심으로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이 둘러싸고 있으며, 해안을 따라 호남지역 남부 일부와 동해안의 일부 지역이 포함된다. 선사시대로부터 근세에 이르기까지 지역적 특색이 비교적 뚜렷한 곳이지만, 동해안으로 따라 중부동해안지역과 이어지기 때문에 과거부터 교류가 빈번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김천 송죽리유적을 비롯하여 청도 오진리유적, 진주 상촌리유적, 부산의 범방패총, 금곡동 울리 암음유적 등이 있다.

중부 동해안지역은 동해안을 끼고 높은 태백산맥이 남북으로 가로막고 있는 곳으로 해안변의 석호 주변이나 소하천을 따라 유적들이 주로 분포하고 있다. 영남의 동해안지역과는 장애물이 없기 때문에 선사시대로부터 교류가능성이 매우 높은 곳이라 할 수 있다. 최근 조사 사례의 증가와 함께 가장 많은 수의 마제석촉류가 출토되고 있는 곳으로 가장 북단의 문암리유적을 비롯하여 가평리유적, 오산리유적, 지경리유적, 지변동유적, 초당동유적 등이 확인되고 있다. 그리고 동북지역은 백두산지에서 뻗어 내린 마천령산맥이 해안변을 따라 형성된 함경산맥을 가로지르고 있기 때문에 중부 동해안지역과는 어느 정도 지형적 장애요소가 되고 있으며, 서포항유적을 통하여 두만강 하류를 포함하는 이 일대 신석기문화의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이들 지역에서 출토되는 마제석촉류를 그림 2와 같이 형식분류하였다. 형식은 마제석촉의 기부(基部) 형태에 따라 평기식(平基式), 만입식(灣入式:內灣式), 양익식(兩翼式), 첨기식(尖基式)으로 대분류한 후, 다시 대형식(大形式)과 소형식(小形式)으로 세분하였다. 먼저 평기식의 경우, 평면 형태가 일반적인 것을 I 형식, 일자형으로 세장한 것을 II 형식으로 구분하였으며, 나머지 하부 형식에 대한 특징은 <표1>에 나타나는 바와 같다.

기본형	평 기 식										침 기 식									
대형식	I								II											
소형식	A	B	C	D	E	F	G	H	A	B	A	B								
기본형	만 입 식								유 경 식											
대형식	I					II			III											
소형식	A	B	C	D	E	A	B	C		A	B	C								
기본형	양 익 식																			
대형식	I												II							
소형식	A	B	C	D	E	F	G	H	I	J	K	L	A	B	C	D	E	F	G	H

그림 2. 신석기시대 마제석촉 형식분류

<표 1> 평기식의 형식별 특징

기본형	대형식	소형식	세 부 특 징
평기식 平基式	I (일반형)	A	석촉 침두부가 호선상을 나타내며, 가운데 구멍이 뚫린 것
		B	평면 형태가 삼각형태를 띠며, 단면 능형을 나타내는 것
		C	평면 삼각형이며, 전체적으로 납작하고 끝부분에만 짧게 날을 세운 것
		D	C의 특징과 유사하지만, 촉신부에 홈이 있는 것
		E	평면 형태가 이등변삼각형을 띠는 것
		F	평면 형태가 오각형을 띠는 것
		G	몸체 최대폭이 가운데 있어 유엽형을 나타내는 것
		H	A형식과 같은 것으로 가운데 구멍이 없는 것
	II (세장형)	A	아주 세장한 일자형으로 단면 6각형을 나타내는 것
		B	일자형에 가깝고 기부 단면은 방형이며, 촉두부는 6각형을 나타내는 것

만입식의 경우, 기부의 만입 형태에 따라 등근 만입을 띠는 것을 I 형식, 역V자상의 만입을 II 형식으로 구분하였으며, 세장한 일자형에 역V자상의 만입 부가 만들어진 것을 III 형식으로 구분하였으며, 나머지 하부 형식에 대한 특징은 <표 2>에 나타나는 바와 같다.

<표 2> 만입식의 형식별 특징

기본형	대형식	소형식	세 부 특 징
만입식 灣入式	I (등근만입)	A	최대폭이 기부 상단에 있으며, 가운데 구멍이 뚫린 것
		B	평면 삼각형으로 가운데 넓은 홈이 있는 것
		C	이등변삼각형에 가까운 형태를 나타내는 것
		D	최대폭이 가운데 있어 유연형을 띠는 것
		E	평면 형태가 오각형을 띠는 것
	II (역V자상 만입)	A	평면 형태가 삼각형으로 결입이 강하게 이루어진 것
		B	오각형에 가깝지만 가운데 구멍이 뚫린 것
		C	A형식과 같은 것으로 가운데 구멍이 없는 것
	III(역V자상 만입)		일자형에 가깝고 기부 단면은 방형이며, 측두부는 6각형을 나타내는 것

양익식의 경우, 익부(나래)의 끝이 편평한 것을 I 형식, 뾰족한 것을 II 형식으로 대별하였으며, 그 하부 형식에 대한 특징은 <표 3>에 나타나는 바와 같다.

<표 3> 양익식의 형식별 특징

기본형	대형식	소형식	세 부 특 징
평기식 平基式	I (平翼形)	A	삼각형에 가까운 형태로 얇고 양쪽 끝에만 짧게 날이 선 것
		B	평면 이등변 삼각형으로 나래가 강하게 벌어진 것
		C	평면 오각형에 가까운 것으로 나래가 좁게 돌출한 것
		D	양쪽 날이 좁고 익부가 넓은 것
		E	평기형에 가까운 형태로 가운데 좁은 홈을 파서 나래의 흔적만 남긴 것
		F	호선상 이등변삼각형에 결입부가 둥글고 나래의 폭이 넓은 것이다
		G	평기형에 가까운 유연형으로 익부는 E와 같이 흔적만 나타내는 것
		H	평면 오각형으로 나래의 기부가 넓고 단면 렌즈상을 띠는 것
		I	H와 같은 것으로 단면 장육각형을 나타내는 것
		J	촉신의 길이에 나래부 길이가 절반을 차지하는 매우 짧은 석촉

기본형	대형식	소형식	세 부 특 징
		K	최대폭이 가운데 위치하는 단면 렌즈상의 석축으로 나래가 두꺼운 것
		L	최대폭이 가운데 위치하는 단면 렌즈상의 석축으로 나래 끝이 좁은 것
	II (尖翼形)	A	尖基式的 형태와 유사하지만, 기부에 좁게 역V자상 홈을 넣은 것
		B	IK식과 유사한 형태에 나래 끝이 뾰족한 것
		C	최대폭이 기부 나래 상단에 있는 석축으로 유엽형(柳葉形)을 띠는 것
		D	촉신부 단면 능형이며, 세장한 형태에 나래가 긴 것
		E	나래의 길이에 비해 촉신부가 짧은 단면 장육각형의 소형 석축
		F	납작하고 나래의 끝이 뾰족하게 돌출한 이등변삼각형태의 석축
		G	F와 동형의 석축으로 나래 사이가 뾰족하게 돌출한 것
		H	F와 동형의 석축으로 나래 사이 기부가 편평한 것

첨기식과 유경식의 경우, 세부 형태가 많지 않아 소형식으로만 분류하였다. 첨기식의 경우 소형식 2종류, 유경식의 경우 3종류로 구분되며 그 특징은 <표 4>에 나타나는 바와 같다.

<표 4> 첨기식과 유경식의 형식별 특징

기본형	소형식	세 부 특 징
첨기식 尖基式	A	세장한 형태의 상하 대칭을 이루는 것
	B	촉두는 뾰족하지만 기부는 약간 둥근 형태
유경식 有莖式	A	촉신 단면은 능형이며, 짧은 경부를 가지지만 평기형에 가깝다.
	B	상하 비대칭으로 경부가 비교적 뚜렷한 형태
	C	촉두부는 삼각형을 이루며 경부가 작살과 같이 길게 되어진 형태

### III. 지역적 특징

#### 1. 중부 동해안지역

동해안지역의 신석기시대 유적 중 시·발굴조사가 이루어진 유적은 현재까지 12개소 정도가 알려지고 있다.<sup>8)</sup> 그 중 마제석축의 경우 지금까지 8개소 유적에

<sup>8)</sup> 고동순, 2006, <동해안지역 신석기시대 마제석축에 대한 고찰> 『강원고고』7·8 합집



동해안지역의 경우, 석촉은 후기 구석기시대의 기곡유적에서 확인된 타제석촉에서 그 계보를 찾을 수 있다.<sup>18)</sup> 이후 문암리유적 압인문토기 전반 단계에 타제석촉(결합식 작살)과 공반되어 나타나고, 그 이후에는 대부분 마제석촉으로 발전

		석촉의 기부형태		
		평기형	내만형	양익형
후기 구석기	기곡유적			
	초기형			
조	오산리하층			
	전	압인문 1기		
압인문 2기				
중	빗살문토기 단계			

그림 3. 동해안지역 마제석촉의 편년과 계보  
(1-5,12,17:오산리, 6-16:문암리, 18,20-22,27:초당동, 23:가평리, 24,25:하시동, 19,26,34:지변동, 28-32:지경리, 33: 송전리)

<sup>18)</sup> 강원문화재연구소, 2005, 『동해시 망상동 기곡구석기유적』 학술총서 30

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과거 서울대학교에서 발굴한 오산리유적의 경우에도 타제석촉류가 지표채집된 것이 있는데, 전반적인 양상으로 보아 석촉의 초기 형식으로 판단된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이 지역에서 시기적으로 구분되는 마제석촉의 편년과 계통관계를 그림 3과 같이 살펴보았다.

## 2. 서북지역

서북지역은 대동강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으로 궁산과 지탑리유적을 중심으로 수개소의 유적이 알려져 있다. 북한학자들에 의하여 궁산유적<sup>19)</sup>과 지탑리유적<sup>20)</sup> 그리고 금탄리유적<sup>21)</sup>과 남경유적<sup>22)</sup>을 중심으로 크게 4단계로 편년되고 있

	양 의 형						내만형	평 기 형				유경식	첨기형	
	ⅢA	ⅡD	ⅡC	ⅡB	ⅡE	J		IK	IC	ⅡB	ID			IH
궁산 1기														
	지탑리 1호													
궁산 2기	지탑리 2호													
궁산 3기	금탄리 1기													
궁산 4기	금탄리 2기													
	〈축척부동〉						신갈리 1기							

그림 4. 서북지역 마제석촉 시기별 변천관계

19) 과학원출판사, 1957, 『궁산원시유적발굴보고』, 유적발굴보고 2

20) 도유호·황기덕, 1961, 『지탑리원시유적발굴보고』, 과학원출판사

21) 사회과학원고고학 및 민속학연구소, 1964, 『금탄리원시유적발굴보고』, 유적발굴보고 10

22)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4, 『남경유적에 관한 연구』, 과학백과사전출판사

다.<sup>23)</sup> 먼저 전기 단계는 공산 제1기로 구분하는데 공산유적 1, 3, 4호 주거지와 지탑리유적 1지구 1호 주거지가 여기에 해당한다. 중기 단계는 공산문화 2기와 3기로 다시 구분되는데, 공산문화 2기는 지탑리 주거지 2, 3호와 오덕리유적 1문화층, 그리고 3기는 공산유적의 2호와 5호 주거지, 그리고 지탑리유적 1지구 상층문화, 금탄리유적 1문화층, 세죽리유적 7호 주거지가 여기에 해당한다. 후기 단계는 공산문화 4기로 편년하고 남경유적 1기를 전반으로, 그리고 금탄리유적 2문화층과 남경유적 2기, 장촌유적을 후반으로 대입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마제석축의 단계별 특징은 그림 4에 나타나는 바와 같다. 같은 1기 단계로 편년되는 황해북도 봉산군 마산리유적에서는<sup>24)</sup> 평기형인 II B식만 출토되고 있지만,<sup>25)</sup> 공산 1기 단계에 마제석축의 종류가 가장 다양하고 기부의 흠이 깊기 때문에 나래가 발달된 형태를 띠고 있으며,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내만형이나 평기형, 첨기형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엿볼 수 있다.

### 3. 중서부지역

중서부지역은 멸악산맥과 차령산맥으로 둘러싸인 그 내부지역이다. 주로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최근 마제석축류가 확인되고 있으며, 중부 동해안지역 다음으로 많은 마제석축류가 확인되고 있다. 전체적인 형태나 특징이 확인되는 곳으로 암사동<sup>26)</sup>과 미사리유적,<sup>27)</sup> 삼거리유적<sup>28)</sup>을 비롯하여 대연평도 까치산패총, 용당포패총, 시도패총,<sup>29)</sup> 오이도 신포B패총,<sup>30)</sup> 영종도 중산패총<sup>31)</sup>과 송산패총,<sup>32)</sup> 삼목도 3유적,<sup>33)</sup> 흘꽃패총,<sup>34)</sup> 남북동유적<sup>35)</sup> 등이 있다.

23) 서국태, 1986, 『조선의 신석기시대』, 사회과학출판사

김용남, 1983, 『공산문화에 관한 연구』 『고고민속논문집』8,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4) 사회과학출판사, 2002, 『마산리, 반궁리, 표대유적발굴보고』, 백산자료원

25) 일반적으로 후기로 편년되고 있는 해주 용당포패총에서도 동일 형식의 석축이 출토되고 있는데, 유물 중에는 공산1기 단계의 토기도 1점 확인되고 있어 석축류는 이 시기와 관련될 것으로 판단된다.

26) 국립중앙박물관, 1994, 『암사동유적』

27) 한양대학교박물관, 1991, 『미사리유적』

28) 송민영·이소희·박경신, 2002, 『연천 삼거리유적』 경기도박물관

29) 한병삼, 1970, 『시도패총』 국립박물관

30) 임효재, 박순발, 1988, 『오이도패총』 서울대학교 박물관

31) 한강문화재연구원, 2009, 『인천 중산동유적 현장설명회 자료집』

32) 박희현·김영관·염경화·서길덕, 1996, 『영종도 송산유적』 서울시립대학교 박물관

33) 임상택·김은영·이나경, 2007, 『인천 삼목도 III유적 학술발굴조사 보고서』 서울대학교 박물관

34) 기전문화재연구원, 2004, 『흘꽃패총』

35) 이선복·임상택·양시은·홍은경, 2006, 『용유도 남북동·을왕동 I 유적』 서울대학교박물관

이 지역의 신석기시대 편년은 일반적으로 전기한 대동강유역의 편년을 바탕으로 4기로 편년되고 있다. 이 지역의 전체적인 편년안을 작성한 임상택에 따르면,<sup>36)</sup> 북한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중서부 지역의 관련토기를 대입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중서부 제1기는 전기 단계로서 다시 전반과 후반으로 구분하고 있다. 전반은 구분계 3부위 시문이 이루어진 토기이다. 지탑리 1호 주거지와 궁산유적의 일부가 여기에 해당하며, 한강유역의 경우 이 단계에 해당하는 유적의 존재여부는 불명확한 것으로 보고 있다. 1기 후반은 구분계 문양을 유지하면서 동체부에 타래문, 중호문, 점열어골문이 시문된 것으로 지탑리 2지구를 비롯하여 대연평도 까치산1패총 하층, 연천 삼거리유적과 하남 미사리유적의 일부를 여기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리고 중기 단계는 북한의 경우와 같이 궁산 2기와 3기를 중서부 2기와 3기로 각각 대입하고 있다. 중서부 2기는 서북지역의 금탄리1식토기와 구연단사선문+동체부 다치어골문(암사동식)일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인천 삼목도유적을 여기에 대비시키고 있다. 중서부 3기는 금탄리 2식토기를 바탕으로 동일계문양 토기이며, 소연평도패총과 영종도 송산, 늘들유적, 남북동, 오이도 신포동유적 등을 이 시기의 것으로 편년하고 있다. 마지막 4기는 후기 단계로 문양이 단순화, 난삽화되는 것으로 모이도패총과 을왕동1유적, 오이도 뒷살막유적 등을 들고 있다.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대동강유역이나 중서부지역 4기 편년 구분은 특별한 층위적 증거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때문에 이러한 분류방식이 시기성을 증명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 없지 않다. 특히 대동강유역을 중심으로 갑자기 등장한 발달된 문화의 출자를 규명하는 점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필자는 이런 점에서 층서적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대연평도 까치산패총을 주목하고 있다.<sup>37)</sup> 이 패총은 다른 지역과는 달리 이른 시기 유물이 나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근의 모이도패총<sup>38)</sup>과 소연평도패총<sup>39)</sup>이 시기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탄소연대에 있어서도 신석기문화 전기 단계까지 올려볼 수 있는 이른 연대를 나타내기 때문이다.<sup>40)</sup>

까치산패총의 층위는 모두 10층으로 구분된다. 최하층인 9층과 10층에서는 다치구를 이용하여 시문한 다음 그 바깥으로 자돌문양을 두른 독특한 것이다.

<sup>36)</sup> 임상택, 2008, 『한반도 중서부지역 빗살무늬토기문화 변동과정 연구』 일지사

<sup>37)</sup> 국립문화재연구소, 2005, 『대연평도 까치산패총』

<sup>38)</sup> 국립문화재연구소, 2003, 『연평 모이도패총』

<sup>39)</sup> 국립문화재연구소, 2002, 『소연평도패총』

<sup>40)</sup> 이 유적에서 확인된 탄소연대는 X-②층: 5020±40 B.P., IX-⑥층: 5250±70 B.P., IX-⑤층: 5370±70 B.P., VII-①층: 5060±110 B.P., V-⑮층: 5090±50 B.P.로 각각 확인되었다.

공산문화 1기의 구분계 시문양식이나 2기 단계를 대표하는 타래문의 원류로 볼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문양의 시문양식은 유사하지만, 기법상으로는 공산 3기를 대표하는 금탄리1식토기와도 상통한다. 때문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금탄리 1식토기의 편년적 성격<sup>41)</sup>을 파악하는데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필자는 판단하고 있다. 이 층에서는 세장형의 찌르개로 판단되는 평기식 II형 식으로 판단되는 마제석촉이 출토되고 있다. 그 상부층인 7층과 8층에서는 구연부 단사집선문양 토기류가 등장하는데, 서해안지역의 특징인 종주어골문양과 함께 남해안의 전기 단계로 편년되는 압인문토기류도 함께 나타나고 있어 상호 접촉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영선동식 압인문토기의 기본적 속성이 어골문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서해안식토기의 중요한 특징적 요소인 어골문 동일계토기의 발생과도 관련하여 주목할 수 있다.<sup>42)</sup>

그 상부인 6층에서는 하층 단계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지만, 공산1기에 나타나는 구연부 단사집선문양과 구연부 자돌문양이 등장하며, 능형집선문양이 자돌압인으로 시문되는 기법상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5층 단계에는 구분계 3부위 시문된 문양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단계에 이르러 공산1기와 중서부1기의 특징적인 요소들이 성립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4층~2층 단계에서는 구연부 단사집선문양은 퇴화하고, 작고 밀집된 자돌문이 구연부 문양으로 등장하며, 전형적인 서해안식 동일계문양이 중심을 이루게 된다. 2층에서는 대부분의 토기들이 모두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교란이 극심한 편으로 볼 수 있다. 이 이후 단계는 시기적으로 소연평도 패총 단계를 거쳐 대연평도 모이도패총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통하여 중서부지역의 토기 편년은 크게 공산1기(중서부1기) 성립 이전 단계를 전기로 편년될 수 있으며, 기존의 견해와 같이 삼부위 시문이 성립되는 공산1기 성립단계를 중기 전반, 그리고 구연부 단사집선문양이 나타나는 2부위 시문과 동일계토기가 같이 나타나는 단계를 중기 후반단계, 구연부 단사집선문양이 소멸하거나 퇴화하는 단계를 후기 단계로 편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sup>43)</sup> 구연부 단사집선문양을 기준으로 편년이 성립되는 과정은 남해안지역과도 일맥

41) 금탄리1식토기를 남해안과 관련되는 신석기시대 전기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이영덕, 1999)와 중기 후반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임상택, 1999) 등 여러 가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42) 필자는 빗살문토기의 발생은 동해안과 남해안의 전기 단계 압인문토기가 상호 결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며, 경제적 배경으로는 중국 화북지역 농경문화의 수용과 관련있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주) 6, 7, 8 전계서

43) 이러한 관점에 따른 이 지역 토기 편년에 대해서는 추후 별고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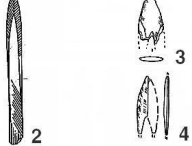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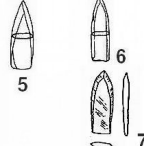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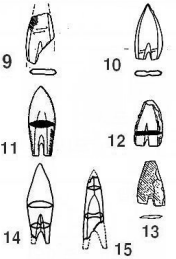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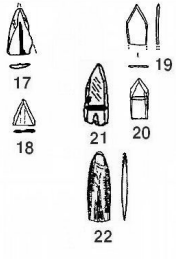



		양 의 식	만 입 식	평 기 식	유 경 식 첩 기 식
전 기	까치산 1 단계 				
중기 전반	중서부 1 단계 				
중기 후반	중서부 2 단계 				
후 기	중서부 3 단계				
만 기	중서부 4 단계				

그림 5. 중서부지역 마제석촉의 형식분류와 편년

(1:까치산 9층, 2,3,7,13:압사동, 4:삼거리, 5,6,19,20:미사리, 8:용당포, 9,10,17:삼목도 3유적, 11,12:시도, 13,14:신포 B유적, 16,18,21:영종도 송산, 22:홀곶, 23:영종도 운서동, 24:단양 상시3동굴, 25:영종도 종산동, 26:용유도 남북동)

상통한다고 할 수 있으며, 서해안의 만기 단계는 남해안지역과 같이 이중구연토기 단계가 아니라 용유도 남북동유적이나 을왕동 I 유적<sup>44)</sup>과 같이 패각조흔문이 퇴화된 침선문양과 함께 시문되며, 공열문이 구연부에 부가되기도 하는 단계로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편년안을 바탕으로 그림 5와 같이 마제석촉의 단계별 분류를 시도하였다. 대체로 석촉의 편년적 흐름은 세장한 형태의 II A식이나 II B식, III

44) 이선복·임상택·양시은·홍은경, 2006, 『용유도 남북동·을왕동 I 유적』서울대학교박물관

식이 가장 이른 시기의 것으로 나타나며, 이와 함께 중기 전반에는 양익식의 나래가 발달하고 나래 기부가 뾰족한 것이 특징이다. 이후 중기 후반(중서부 2단계)에 이르면서 나래의 기부가 평기형으로 변화하는데, 후반기에 이르면서 만입식(내만식)이나 납작한 형태의 양익식 IB형과 IC형이 나타난다. 이는 서북지역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형식으로 아마 중부 동해안지역의 영향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후반기에 만입식의 IC형식이 IIC형식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4. 서남부지역

서남부지역은 차령산맥과 소백산맥, 노령산맥으로 해안을 둘러싸고 있는 지역으로 호남지역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곳은 지리적으로 서해안지역과 영남 남해안지역과의 중간에 위치하는 관계로 양 지역의 문화요소가 모두 나타나고 있다. 상대적으로 편년이 정립된 영남지방의 자료를 바탕으로 상호 교차편년 설정이 용이한 편이다. 마제석축 출토 유적의 경우, 가도패총<sup>45)</sup>이나 노래섬패총<sup>46)</sup>의 경우와 같이 중서부지역과 인접하는 패총유적과 진그늘유적<sup>47)</sup>이나 갈머리유적<sup>48)</sup>과 같이 소백산맥을 경계로 영남지방과 인접한 곳으로 구분할 수 있다. 특히 이 지역에서는 가도패총을 통하여 층위적인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가도패총 A지구의 경우 모두 10개의 층위로 구분되는데, 탄소연대는 모두 9개가 측정되었다.<sup>49)</sup>

층위적 양상을 바탕으로 그림 6과 같이 마제석축의 형식분류와 편년을 시도하였다. 가도패총 최하층에서는 오산리 초기 단계의 경우와 같이 기부상단에 구멍이 뚫린 석축류가 출토되었다. 이와 함께 최하층에서는 전기 단계로 편년되는 영선동식압인문토기류가 출토되었으며, 금탄리 1식토기와 관련되는 대상반복구연토기가 출토되어 중부 서해안지역과의 공산3기(중서부 3기)와 편년적인 관점 차이로 현안 문제가 되고 있다.

이 지역 마제석축의 편년은 대체로 석축의 기부 상단에 구멍이 뚫린 것이 가도패총 최하층기에서 나타나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중부 동해안지역의 초기 단계 IA식 마제석축과 유사하다. 이런 형식은 영남

45) 충남대학교박물관, 2001, 『군장국가공단조성지역 문화유적발굴조사보고서Ⅲ』

46) 최완규·김종문·이영덕, 2002, 『노래섬(I)』, 원광대학교박물관

47) 이기길·윤정국, 2005, 『진안 진그늘 선사유적』, 조선대학교 박물관

48) 안승모·이영덕·김대성, 2003, 『갈머리유적』, 호남문화재연구원

49) 충남대학교 박물관, 2001, 『군장국가공단조성지역 문화유적발굴조사보고서Ⅲ』

탄소연대는 5460±60B.P.~3160±60 B.P.로 나타나 청동기시대까지 연속된 유적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실제로 청동기시대 유물도 1층에서 다수 출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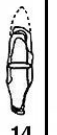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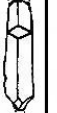
		양 의 식	만 입 식	평 기 식	유 경 식	첨 기 식
전 기	암인묘토기 단계	 1	 2  3	 4  5		
중 기	침선묘토기 단계	 6  7	 8  9  10	 11  12	 13  14	 15
후 기	봉계리식토기 <축척부동>		 16		 17  18	

그림 6. 서남부지역 마제석족의 형식분류와 편년  
(1~5:가도 A패총 9,10층, 6,12:노래섬, 7,9,10,11,16:진그늘, 8,14,15:가도 A패총 1층, 13:가도 A패총 7층, 17,18:순창 원촌)

남해안지역에서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동해안을 따라 남해안지역으로 파급되었을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다. 또한 중서부지역과 같이 나래가 발달된 형태는 나타나지 않으며, 중기 후반과 후기 단계에 나타나는 만입식의 IC형식과 IIC형식의 경우는 거의 같은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음이 주목된다. 또한 중서부지역이나 동해안지역과 다른 점은 중기 단계부터 첨기식과 유경식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것이 같은 만기 단계로 편년되는 부산 금곡동 울리패총에서도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청동기시대 유경식 마제석족의 원류와 관련하여 주목된다고 할 수 있겠다.

## 5. 영남 남해안지역

영남 남해안지역은 소백산맥과 동해안의 남단부를 포함하는 지역이며, 일부 전라남도 도서지역이 포함된다. 지금까지 알려진 유적으로는 진주 상촌리유적<sup>50)</sup>을 비롯하여 김천 송죽리유적,<sup>51)</sup> 청도 오진리유적,<sup>52)</sup> 범방패총,<sup>53)</sup> 울산 세죽유적,<sup>54)</sup>

<sup>50)</sup> 이동주, 2003, 『남강유역의 신석기문화와 일본열도』 『진주 남강유적과 고대일본』 신서원

안도패총,<sup>55)</sup> 만기 단계의 것으로 부산 금곡동 율리 암음유적<sup>56)</sup> 출토품 등이 있다. 이 지역의 기본적인 토기 편년은 다른 지역에 비하여 별다른 이견없이 비교적 정확한 편년안이 정립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내용은 용기문토기와 조흔문, 무문양토기 등을 중심으로 하는 초기 단계와 압인문토기를 중심으로 하는 전기, 그리고 구연부 단사집선문양이 시문된 수가리식토기를 중심으로 하는 중기, 봉계리식토기를 중심으로 하는 후기, 이중구연토기를 중심으로 하는 만기 단계로 편년되고 있다. 그런데 이 중 유적 성격상으로 가장 이른 시기의 것으로 울산 세죽유적 출토 마제석촉이 있다. 그런데 남해안지역의 경우 용기문토기 단계를 중심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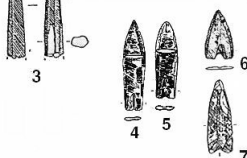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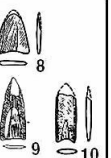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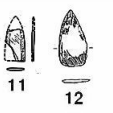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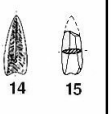


		양 익 식	만 입 식	평 기 식	유 경 식	첨 기 식
전 기	압인문토기					
중 기	침선문토기					
후 기	봉계리식토기					
만 기	율리식토기 <축척부동>					

그림 7. 영남 남해안지역 마제석촉의 형식분류와 편년

(1:안도 가패총, 2:범방패총, 3,4,5:청도 오진리, 6:울산 세죽리, 7,9,12,13:진주 상촌리, 8,10,11,16: 김천 송죽리, 14:안도 가패총 1층, 15:합천 봉계리, 17:금곡동 율리)

51) 배성혁, 2006, 『김천 송죽리유적 I』계명대학교 행소박물관  
 52) 부산대학교박물관, 1994, 『청도 오진리 암음유적』  
 53) 하인수·이해린·이현주, 1993, 『범방패총 I』부산시립박물관  
 54) 동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2007, 『울산세죽유적 I』  
 55) 조현중·양성혁·윤은식, 2009, 『안도패총』국립광주박물관  
 56) 부산대학교 박물관, 1980, 『금곡동 율리패총』

하는 초기 단계에 공반되는 석축은 연대도패총<sup>57)</sup>이나 옥지도패총<sup>58)</sup> 동삼동유적 등 대부분 흑요석을 중심으로 하는 타제석축류이다. 그러나 이 유적 출토품의 경우 오산리유적 전기 단계 출토품인 양익식 IA형식과도 유사하지만, 양쪽 날 부분이 약간 호선상을 이루고 나래의 홈이 얇게 파여진 점에서 중서부지역의 삼목도, 시도, 신포B유적 출토품과 형태상 매우 흡사하다. 특히 같이 출토된 석창의 경우, 일반적으로 중서부지역 공산유적이나 지탑리유적 등 중기 단계 석축류와 공반되는 것이다. 또한 이 유적에서는 탄소연대나 유물 중에는 드물지만 중기 단계의 것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sup>59)</sup> 이 유물은 중기 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지금까지 확인되었던 유적들의 출토 내용을 참고하여 그림 7과 같이 형식분류 및 편년을 시도하였다.

## 6. 동북지역

동북지역의 경우 편년적 성격을 확인할 수 있는 유적으로 서포항유적을 들 수 있다.<sup>60)</sup> 이 유적은 패총과 같이 층위적 출토 내용이 아니라 중복관계에 의한 편년을 기준으로 관련유물과 유적들을 시기적으로 구분한 것이다. 때문에 일부 유물의 경우 편년적 논란의 여지가 없지 않지만, 학계에서는 대체로 수용하고 있는 편이다. 북한의 발굴유물의 시기 구분에 따라 출토된 석축과 관련유물들을 선별하여 작성한 것이 그림 8이다.

동북지역의 경우 뼈를 이용한 골축과 타제석축이 지속적으로 출토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 유적의 경우에도 골축은 의외로 일찍부터 사용되었던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골축의 경우에는 대부분 유경식 내지는 첨기식이 대부분이며, 화살대에 꽂아 사용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타제석축의 경우, 마제석축의 등장한 3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있어 다른 지역과 차이가 있다. 마제석축은 3기 단계부터 나타나고 있는데, 타레문양 혹은 고사리문양과 함께 어골문양을 대칭시키면서 내부에 능형으로 비워둔 문양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동해안이나 서해안, 남해안지역 모두 중기 단계에 나타나는 특징이기 때문에 시기적 관련성을

57) 국립진주박물관, 1993, 『연대도』 유적조사보고 8

58) 국립진주박물관, 1989, 『옥지도』 유적조사보고 3

59) 탄소연대는 토기 부착 탄화물을 시료로 하여 측정된 것은 모두 7개 있으며, 6740±30 B.P.~6110±80 B.P.로 나타났다. 목탄을 이용한 연대결과도 대부분 유사한 편이지만, 이 중 C3핏트 II-2층의 경우에는 4390±60 B.P.로 나타난 예가 있다.

60) 김용간·서국태, 1972, 『서포항 원시유적 발굴보고』 『고고민속논문집』4

짐작할 수 있다. 마제석촉은 기본적으로 다른 지역과는 차이를 갖는데 1기와 2기 단계에 중심이 되었던 첨기식의 전통을 그대로 이어 받아 석촉을 제작하고 있다. 4기 단계는 신석기시대 후기로 편년되며, 5기 단계는 만기, 혹은 청동기시대 초기로 분류되기도 하는데 첨기식과 함께 내만식이 나타나고 있어 다른 지역과 동일한 변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서포항유역 각 단계별 출토 관련유물			
		마제석촉	타제석촉	골각기	도 기
청동기 문화층	2기				
	1기				
신석기 문화층	5기				
	4기				
	3기				
	2기				
	1기				

그림 8. 서포항유역의 단계별 마제석촉과 관련유물

#### IV. 마제석촉의 계보와 편년

이상 각 지역별로 신석기시대 유물의 편년관계를 통하여 마제석촉의 형식과 특징을 살펴보았다. 이에 따라 각 지역별로 편년적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분석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것이 그림 9이다. 각 지역별로 지금까지 확인된 마제석촉 등장 이전 단계의 내용들도 제시하여 그 계통관계를 살펴보았다.

	서북지역	중서부지역	중부동해안지역	영남남해안지역	서남부지역	동북지역
후기구석기 요동유적			타제석촉			
중기			타제석촉 사용기	타제석촉 사용기		
초기			타제석촉 사용기	타제석촉 사용기		
중기	문암리유적					타제석촉 사용기
	오산리유적					타제석촉 사용기
	오산리유적					타제석촉 사용기
후기						
말기						

그림 9. 한반도 신석기시대 마제석촉의 계보와 편년관계

각 지역별 분석 결과 마제석촉의 발생은 오산리유적과 문암리유적을 중심으로 하는 중부 동해안지역에서 가장 일찍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지역은 후기 구석기시대부터 타제석촉이 나타나는 등 한반도 내에서 석촉의 발생이 가장 이른 곳이라 할 수 있다.<sup>61)</sup> 최근 조사된 오산리 C지구 하층 단계에서 아주

61) 강원문화재연구소, 2005, 『동해시 망상동 기곡구석기유적』 학술총서 30

발달된 토기문화와 함께 마제석축이 출토되었으며,<sup>62)</sup> 이 층의 절대연대는 7,057±32 B.P.(보정연대: 6,010~5870 B.C.), 6,834±31 B.P.(5,890~5,730 B.C.), 6,749±32 B.P.(5,710~5,610 B.C.), 6,599±26 B.P.(5,570~5,480 B.C.)로 확인되었다. 제주도 고산리문화와 관련된 유적들을 제외한다면 이와 유사한 시기의 것으로는 남해안지역의 용기문토기 단계에 해당하며, 따라서 이 시기를 중부 동해안지역 초기 단계로 설정이 가능하다. 필자가 조사한 동삼동유적의 양호한 용기문토기층의 연대는 6,580±60 B.P.와 6,520±50 B.P.로 확인된 바 있다.<sup>63)</sup> 그러나 여기서는 타제석축만 출토되었을 뿐 마제석축은 확인되지 않았다. 기술하였던 바와 같이 용기문토기 중심의 울산 세죽유적에서도 마제석축과 석창이 확인된 바 있지만, 이 유적에서는 중기 단계의 유물과 탄소연대가 확인된 바 있고, 같이 출토된 마제석창 경우도 중기 빗살문토기 단계에 공반되는 것과 특장상 유사하기 때문에 중기 단계의 유물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현 단계로서는 동해안 지역이 가장 이른 시기의 마제석축 문화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각 단계별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초기 단계는 중부 동해안지역에서만 마제석축이 확인되며, 삼각형 혹은 이등변삼각형을 이루고 있으며, 기부는 평기식과 만입식(내만식)이 나타나는데, 가운데 구멍을 뚫은 것이 대부분이다. 이전 타제석축 문화 단계의 전통을 이어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되는 유물은 그림 9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영남 남해안지역의 부산 범방패총과 여수 안도패총, 그리고 서남부지역의 가도패총 최하층 단계에서 확인되고 있는데, 모두 압인문토기를 특징으로 하는 전기 단계로 판단된다. 안도패총 최하층은 영선동식압인문토기가 출토되었고, 범방패총의 경우도 동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시기 1차적인 마제석축의 파급이 해안을 따라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 전기 단계의 유물은 오산리식 압인문토기 중심 시기로 오산리유적<sup>64)</sup>과 문암리유적<sup>65)</sup>에서 마제석축이 확인되고 있다. 오산리유적의 경우 초기 단계의 특징에서 가운데 구멍만 없는 것이고, 문암리유적의 경우에는 찌르개로 볼 수 있는 세장한 형태의 평기식 II A식에서 동일한 형태에 기부에 깊게 홈이 파여진 만입

62) 고동순, 2009, 『동해안 오산리 C지구 최하층유적의 조사 성과』 『한·일 신석기시대의 어로와 해양문화』 제8회 한·일 신석기시대 공동학술대회 발표자료집

63) 이동주, 2009, 『동삼동패총의 환경과 해수면변동』 『동삼동패총의 재조명』 동삼동패총 발굴 80주년 기념 학술세미나, 신석기학회

64) 임효재·이준정, 1988, 『오산리유적Ⅲ』 서울대학교박물관

65) 국립문화재연구소, 2004, 『고성 문암리유적』

식 Ⅲ형식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단계에 나타나는 세장한 형식은 중서부지역의 전기 단계로 편년하였던 대연평도 까치산패총 최하층 단계에서도 나타나며, 영남 남해안지역의 경우 청도 오진리 암읍유적에서 확인된 바 있다.

다음 중기 단계의 경우, 빗살문 1단계는 공산-지탑리를 중심으로 하는 서북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다. 중부 동해안지역 압인문토기 단계에 나타났던 세장한 형태의 특징적인 ⅡA, B, 만입식 Ⅲ형식을 바탕으로 변용된 유경식 C형식과 함께 다양한 형태의 마제석촉들이 나타나고 있다. 나래가 발달하고 뾰족한 기부 형태를 가진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형태는 인접한 용당포나 암사동 유적 등 일부에서만 확인되고 있다. 그런데, 중부 동해안지역의 경우 전기 압인문토기 단계와 중기 빗살문토기단계는 상호 불연속적인 측면이 많고, 공산-지탑리 유적 단계에서 돌연히 나타나는 양상으로 보아 전기 단계의 중부 동해안지역의 발달된 마제석촉 제작 집단들이 농경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환경을 찾아 집단 이주하였을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마제석촉의 전통은 강릉 초당동유적에서 일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동시기 유적의 흔적인지, 중기 단계와의 계통적인 관계인지는 향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중기 빗살문 2단계는 전 단계에 발달하였던 나래의 발달이 약해지고 전체적으로 나래의 기부가 평기형으로 변화가 나타나면서 마제석촉의 전통이 전 지역으로 확산되는 단계이다. 다만 동해안지역을 중심으로 축신부가 길어지면서 발달된 나래의 전통이 이어지고 있지만, 영남 남해안지역과 서남부지역은 그 흔적만 나타나고 있다. 즉, 영남 남해안지역과 서남부지역은 평기식에 가까운 양익평기형에서 내만형으로 변화하며, 이러한 기본적인 현상은 전반적으로 동일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함께 특수한 목적에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삼각형의 납작한 형태를 띠는 평기식 IC, ID, 만입식 ID형식의 석촉들이 지역 구분없이 전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이 주목된다.

이상과 같은 점에서 공산-지탑리유적에서 양익식으로 발달된 마제석촉류가 빗살문토기 문화의 확산과정과 관련하여 각지에서 다양한 지역적 특징을 지닌 형태로 발전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토기의 경우에 있어서도 중서부지역과 남해안지역의 경우 상호 공반 예가 없다는 점에서 마제석촉 문화의 차이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동해안지역의 경우, 중서부지역과 영남 남해안지역 토기가 모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가장 다양한 형태의 석촉이 등장하는 배경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중기 빗살문토기 3단계는 마제석촉 나래부의 평기형이 사라지면서 전체적

으로 선단부가 호선상을 띠는 납작한 이등변삼각형을 띠며, 단면이 오목 6각형으로 발달하는 등 변화가 나타난다. 이 중 영남 남해안지역과 서남부지역은 만입식 IC형식과 IIC형식이 주종을 이루는데, 한편으로 유경식 석축이 빗살문 2단계로부터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음이 주목된다. 중부 동해안지역의 경우는 가장 세련된 형태를 띠는 양익식 IIF, IIG, IIH형식으로 발달한다.

다음으로 후기로 편년되는 빗살문 4단계와 만기로 편년되는 빗살문 5단계에 이르면서 영남 남해안지역과 서남부지역에서 확립된 만입식 IC형식과 IIC형식이 전지역으로 확산되면서 서북지역과 중서부지역, 동북지역은 유엽형에 가까운 첨기식 A형식이 등장하며, 영남 남해안지역과 서남부지역은 유경식석축으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중부 동해안지역은 이 단계의 석축류가 확인되지 않지만, 빗살문 3단계에 중심을 이루었던 양익식 IIF, IIG, IIH형식 석축류가 청동기시대 혼암리유적을 비롯한 각지에서 지속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 계통성이 주목된다고 할 수 있다. 전체적인 변화의 흐름은 후·만기로 이행하면서 첨기형이나 내만형으로 변화하는데, 이러한 변화 중 첨기형의 가장 이른 형태는 편년상 동북지역 서포항유적과 관련지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주로 북부지역을 통하여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 중 주목되는 것은 영남 남해안지역과 서남부지역에서 확인되었던 유경식의 변화와 중부 동해안지역의 양익식 IIF, IIG, IIH형식 석축류는 청동기시대 무경식 석축과 계보를 잇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실 신석기시대와 청동기시대의 계승관계가 문화적으로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점에서 신석기시대 마제석축의 계통성을 통하여 다양한 양상을 나타내는 청동기시대 문화의 형성과정을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하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V. 맺음말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마제석축의 형식분류를 시도한 후 유물의 조합상으로 나타나는 지역을 중심으로 구분을 시도하고, 각 지역별로 나타나는 양상과 편년 관계를 통하여 신석기문화의 변천과정에 따른 교류 및 형성과정을 이해하고 그에 따른 해석을 새롭게 살펴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에 따라 우리나라 신석기시대 마제석축의 발생과 관련하여 한반도를 모두 6개의 권역으로 구분하여 편년과 계승관계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마제석축은 동해안의 조기 단계로 편년될 수 있는 오산리 C지구 하층양식에서 발생하여 1차적으로 해안을 따라 남해안과 서남부지역으로 전파된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이후 전기 단계에 이르면서 세장한 형태를 가진 특징적인 형식이 서북지역으로 이어지면서 주변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당시 환경적인 어떠한 요인에 의하여 농경문화의 수용이라는 생업경제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빗살문토기 단계에 마제석축이 확산되는 것은 이 농경문화가 다시 주변지역으로 파급되면서 상호 접촉과정에서 지역적 특색을 보이며 발전하였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세부적인 특징은 차이가 있지만, 신석기 후·만기로 이어지는 마제석축 변화의 큰 흐름은 거의 동일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중국 동북지역의 요동반도 일대에 있어서도 동일한 편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방추차와 같은 이전 단계에 볼 수 없었던 유물들의 출토와도 관련지을 수 있겠다.

이러한 검토를 통하여 공산-지탑리유적에서 형성된 문화 내용은 동해안의 압인문토기문화 단계의 전통을 계승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결국 이 문화의 확산 과정에서 동해안이나 남해안지역의 중기 단계 성립이라는 공통적인 시기성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학자들의 견해를 따라 전기 단계로 설정된 공산문화 1기 혹은 서해안 1기는 모두 중기 전반으로 편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절대연대에 있어서도 구체적으로 시기를 앞세울 근거는 없다. 다만 이 지역에서의 전기 단계는 대연평도 까치산 최하층 문화 단계로 새로이 설정할 필요가 있다. 절대연대에 있어서도 동해안이나 남해안지역 전기 압인문토기 문화와 동시기로 간주해도 문제가 없으며, 유적의 층위에서도 증명되고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한반도 신석기문화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었기 때문에 중기 단계를 구체적으로 세분하는 작업이 다소 미흡하였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은 향후의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 투고일 2010년 1월 15일 | 심사완료일 2010년 3월 4일 | 게재확정일 2010년 3월 10일 ▣

## 참고문헌

- 강원문화재연구소, 2005, 『동해시 망상동 기곡구석기유적』 학술총서 30  
\_\_\_\_\_, 2006, 『강릉 하사동 공군관사 부지내 문화유적 시굴조사보고서』
- 배성혁, 2006, 『김천 송죽리유적 I』 계명대학교 행소박물관
- 고동순, 2006, <동해안지역 신석기시대 마제석촉에 대한 고찰> 『강원고고』 7·8  
합집  
\_\_\_\_\_, 2009, 『동해안 오산리 C지구 최하층유적의 조사 성과』 『한·일 신석기시  
대의 어로와 해양문화』 제8회 한·일 신석기시대 공동학술대회 발표자료집
- 과학원출판사, 1957, 『공산원시유적발굴보고』, 유적발굴보고 2
-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4, 『남경유적에 관한 연구』,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국립문화재연구소, 1999, 『襄陽 柯坪里』
- 구자진, 2005, 『신석기시대 대상반목문토기에 대한 검토』, 『한국신석기연구』 9,  
한국신석기학회
- 국립문화재연구소, 2002, 『소연평도패총』  
\_\_\_\_\_, 2003, 『연평 모이도패총』  
\_\_\_\_\_, 2004, 『고성 문암리유적』  
\_\_\_\_\_, 2005, 『대연평도 까치산패총』  
\_\_\_\_\_, 2004, 『高城 文岩里遺蹟』
- 국립중앙박물관, 1994, 『암사동유적』
- 국립진주박물관, 1989, 『육지도』 유적조사보고 3  
\_\_\_\_\_, 1993, 『연대도』 유적조사보고 8
- 기전문화재연구원, 2004, 『흘곶패총』
- 김용간·서국태, 1972, 『서포항 원시유적 발굴보고』 『고고민속논문집』 4
- 김용남, 1983, 『공산문화에 관한 연구』 『고고민속논문집』 8,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도유호·황기덕, 1961, 『지탑리원시유적발굴보고』, 과학원출판사
- 동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2007, 『울산세죽유적 I』
- 박진욱, 1967, 『우리나라 활촉의 형태와 그 변천』 『고고민속』 67-1
- 박준범, 2006, 『한강유역 출토 선사시대 간돌화살촉 연구』 『신석기학보』 12
- 박희현·김영관·염경화·서길덕, 1996, 『영종도 송산유적』 서울시립대학교 박  
물관
- 백흥기·고동순·심상욱, 2002, 『襄陽 地境里 住居址』, 江陵大學校 博物館

- 부산대학교박물관, 1994, 『청도 오진리 암음유적』
- 사회과학원고고학 및 민속학연구소, 1964, 『금탄리원시유적발굴보고』, 유적발굴  
보고 10
- 사회과학출판사, 2002, 『마산리, 반궁리, 표대유적발굴보고』, 백산자료원
- 서국태, 1986, 『조선의 신석기시대』, 사회과학출판사
- 송만영·이소희·박경신, 2002, 『연천 삼거리유적』경기도박물관
- 안승모, 2002, 『금탄리 I 식토기의 재검토』 『한국신석기연구』4, 신석기학회
- 안승모·이영덕·김대성, 2003, 『갈머리유적』, 호남문화재연구원
- 예맥문화재연구원, 2007, 『江陵 池邊洞遺蹟』
- 예맥문화재연구원, 2008, 『襄陽 松田里遺蹟』
- 이기길·윤정국, 2005, 『진안 진그늘 선사유적』, 조선대학교 박물관
- 李東注, 1997, 『全面施文 沈線文土器의 展開와 編年』 『古文化』50, 韓國大  
學博物館協會
- \_\_\_\_\_, 1999, 『韓國櫛目文土器의 發生と 展開について』 『第3回 韓日新  
石器時代交流研究會』九州繩文研究會·韓國新石器研究會, 第3  
回 鹿兒島大會
- \_\_\_\_\_, 2000, <빗살문토기 文化의 性格> 『先史와 古代』13, -신석기문화의  
새로운 연구-, 한국고대학회
- \_\_\_\_\_, 2000, <동해안지역과 남해안지역의 빗살문토기문화> 『지경리선사문화  
에 대한 학술강연회자료』 양양군·양양군의회
- \_\_\_\_\_, 2001. 4, <중동부 해안지역 빗살문토기 문화의 성격> 『한국신석기연구』  
1, 한국신석기학회
- \_\_\_\_\_, 2003. 10, <빗살문토기 段階의 石器 內容과 特徵> 『한국신석기연구』  
6, 한국신석기학회
- \_\_\_\_\_, 2003, 『남강유역의 신석기문화와 일본열도』 『진주 남강유적과 고대일본  
』신서원
- \_\_\_\_\_, 2009, 『동삼동패총의 환경과 해수면변동』 『동삼동패총의 재조명』동삼동  
패총 발굴 80주년 기념 학술세미나, 신석기학회
- 이선복·임상택·양시은·홍은경, 2006, 『용유도 남북동·을왕동 I 유적』 서울  
대학교박물관
- 이영덕, 1999, 『군산 노래섬유적의 신석기시대토기 연구』단국대 대학원 석사학  
위논문
- 임상택, 1999, 『한반도 중부지역 신석기시대 중기토기의 양상』 『선사와 고대』13

- \_\_\_\_\_, 2008, 『한반도 중서부지역 빗살무늬토기문화 변동과정 연구』일지사
- 임삼택 · 김은영 · 이나경, 2007, 『인천 삼목도 III유적 학술발굴조사 보고서』서울대학교 박물관
- 임세권, 1977, 『우리나라 마제석촉의 연구』 『한국사연구』17, 한국사연구회
- 임효재, 박순발, 1988, 『오이도패총』서울대학교 박물관
- 임효재 · 이준정, 1988, 『오산리유적III』서울대학교박물관
- 전영래, 1982, 『한국마제석기, 석촉편년에 관한 연구』 『마한 · 백제문화』4 · 5합집
- 조현중 · 양성혁 · 윤온식, 2009, 『안도패총』국립광주박물관
- 지현병 · 고동순 · 홍성학 · 김민경, 2006, 『강릉초당동신석기유적』강원문화재연구소
- 최성락, 1982, 『한국마제석촉의 고찰』 『한국고고학보』12, 한국고고학연구회
- 최완규 · 김중문 · 이영덕, 2002, 『노래섬( I )』원광대학교박물관
- 충남대학교박물관, 2001, 『군장국가공단조성지역 문화유적발굴조사보고서III』
- 하인수 · 이해련 · 이현주, 1993, 『범방패총 I』부산시립박물관
- 한강문화재연구원, 2009, 『인천 중산동유적 현장설명회 자료집』
- 한병삼, 1970, 『시도패총』국립박물관
- 한양대학교박물관, 1991, 『미사리유적』
- 한영희, 1978, 『한국 중부지방의 신석기문화』, 『한국고고학보』5
- \_\_\_\_\_, 1983, 『지역적비교』, 『한국고고학보』12
- 황기덕, 1958, 『조선에서 나타난 활촉의 기본 형태와 분포』 『문화유산』6, 과학원출판사
- 황용운, 1983, 『석기 · 골각기』 『한국사론』12, 한국의 고고학 I · 하, 국사편찬위원회

## Abstract

### A study on the polished stone arrowhead in neolithic of Korea

Lee, Dong-ju

Although the Polished Stone Arrowhead (Maje seokchok) has been one remains with some important features in Neolithic of our country with the Jeulmun pottery, so far, the concrete and comprehensive review of it hasn't been come true.

In this study, after organizing recent data from a comprehensive survey and then categorizing by type, I'd like to review by the recording chronologically of each region and the mutual relativity. As a result, it has been confirmed that the Stone Arrowhead (Maje seokchok) was found in the lower classes of the Press down-patterned pottery (Apinmoon earthenware) stage of the eastern coast in the Korean Peninsula, especially focused on the ruins of Osan-ri and Munam-ri at the first time.

Since then, it has been considered that the Press down-patterned pottery (Apinmoon earthenware) which was recorded chronologically as the former part of the Neolithic Age has been spreaded primarily into the southern coast of Korean in the process of diffusion.

After as connected into the Jeulmun pottery stage of the middle part in Neolithic, while the east coast had a strong feeling of being cut off, these characteristic elements had the most appearance and development when they emerged suddenly in the northwestern coast centered on the remains of Gungsan-ri Oncheon and Jitap-ri Bongsangun Hwanghaedo.

If considering the cultural characteristics of pottery, it has been appeared that some elements were combined with one of the South Coast region.

Finally, it is determined that the middle part of the Neolithic Age represented as the Jeulmun pottery had been formed in the process of spreading to the south.

Key Words : Neolithic, Polished Stone Arrowhead(Maje seokchok), Press down-patterned pottery(Apinmoon earthenware), Jeulmun pottery, Gungsan-ri Remains, Jitap-ri Remains, Osan-ri Remains, Munam-ri Remains